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민선식 남원부시장, 기획재정부 찾아 핵심사업 예산 지원 건의

남원시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응에는 민선식 부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 지역 핵심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최경식 시장이 2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것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남원시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행보다.

이곳에서 남원시는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국토부, 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국토부, 43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문체부, 170억원) △남원 현대 숲길 목공예관 건립(문체부, 152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문체부, 490억원) △바이오헬스 활용 미꾸리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환경부, 15억원) 등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2026년도 국가 예산은 각 지자체가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이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신성한 사업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편성해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민선식 부시장은 “현재는 부처 예산

편성 단계가 끝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간 중요한 시점이라, 시장님의 중앙부처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빛으로 밝히는 경천길’ 사업 속도

순창군,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 공모 선정

순창의 대표 산책로인 경천길이 야간에 안전하고 환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의 ‘빛으로 밝히는 행복한 순창 경천길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 맞춤형 안전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도내 7개 시·군 중 순창군은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빛으로 밝히는 행복한 순창 경천길 조성사업’은 순창을 경천 산책로 구간인 △태양광 표지병 △교량 LED바 △로고젝터 △CCTV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스마트 안전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순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높



은 방법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범죄예방 모델로서도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경천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해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범죄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순창군, 봄철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순창군 전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민간 사회단체와 군부대,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매실·복분자·오디 등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을



우선 지원하며, 고추 지주목 설치, 과실 수거, 분지 써우기, 비닐멀칭, 병해

충 방제, 벼 이앙작업, 영농폐기물 수거와 농경지 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도 일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형식적인 행사성 활동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도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사나 읍면 상담소장 등 전문 인력이 함께해 참여자에게 작업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서울국제관광전서 임실 홍보

국내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서 ‘임실 방문의 해’ 홍보관 운영

임실군이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다채로운 임실 관광 매력을 뽐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COEX에서 진행된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2025 임실 방문의 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서울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와 국제관광인포럼이 주최하고 (주)코트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40회를 맞는 국내외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로, 국내 지자체 30개 기관, 35개 기업, 해외 77개 기관 등 총 142개 기관·기업이 참가하여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임실군은 보석 같은 관광자원과 여행자를 국내외 기관·단체에 소개하고, 지역 문화 관광의 매력을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실의 숨겨진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최근 관광객이 급증한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과 장미꽃이 만발한 장미원을 품은 임실치즈 테마파크 등 인기 관광지를 집중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은 전시관 내 임실 방문의 해 홍보부스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 이미지 홍보, 홍보 배너, 리플릿 배부 활동을 펼쳤다.

특히, SNS 친구 추가 방문객 대상 물렛 돌리기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통해 임실군 공식 SNS 홍보도 함께 추진했



다.

이와 함께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홍보도 함께 추진했는데,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경우 20% 할인된 가격으로 대한민국 명품 치즈인 임실치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실제 임실치즈 답례품은 기부자의 73%가 선택하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 갈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국내외에 임실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실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곳곳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보건소 안선희 감염병대응팀장,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

남원시가 감염병 발생 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자, 감염병 대응의 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안선희 팀장을 제1호 역학조사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안선희 역학조사관은 2023년 4월 20일 수습역학 조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훈련,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및 2회 이상의 지속교육,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성실히 이수하여 정식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 지장이 의무 사항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내부 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로 역학조사관 1호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남원시는 코로나19 이후 2개 팀이었던 감염병 관련 조직을,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3개 팀(관리·대응·예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제1호 역학조사관에 이어, 현재 수습 역학조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후속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발굴과 인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선희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에 실질적으로 대응 해 왔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 분석과 역학조사 수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고추 병해충 적기 방제 현장 지도 강화

임실군이 고추 병해충 발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고추 병해충 적기 방제 현장 지도 강화 및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고추 안정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추 재배면적 387ha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4백만원을 투입한다.

살충제 1종, 살균제 1종을 지원하며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개최해 약제를 선정하고, 농가별 고추 재배면적에 따라 수요 조사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살충제는 고추 주요 해충인 꽃노랑총채벌레와 담배나방 등을 종점에 두고 선정됐다.

공동방제 시기는 먼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꽃노랑총채벌레, 담배나방 등 충 위주의 방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6월 중순 이후 탄저병 발생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사업 킷오프 워크숍

남원시는 시 바이오 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2025년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는 킷오프 워크숍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참여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농촌의 유휴 산가, 공장, 폐교 등 유휴시설을 수직농장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자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워크숍에서는 △수직농장 실증 계획 △재생에너지 기반 운영 시스템 △병풀·작상수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전략 △전주기 자동화 기술 개발 △경제성 분석과 수익화 모델 등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